Korean J. of Child Studies
Vol. 35, No. 3, 71-92, June 2014
DOI : dx.org/10.5723/KJCS.2014.35.3.71

www.childkorea.or.kr
pISSN1226-1688
eISSN2234-408X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의 삶의 만족도 관련 변인의 유형화 연구*

A Clustering Study of the Variables Related to Elementary School 5th Graders' Levels of Life Satisfaction*

천희영(Hui Young Chun)[1)]
송영주(Youngjoo Song)[2)]
이미란(Mi Ran Lee)[3)]

ABSTRACT

Using the second year data of the Korean Child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elementary 4 panel, this study attempted to elucidate variables related to elementary school 5th graders' life satisfaction and how the variables are clustered in each gender. Analyzing the data of 2378 5th graders (boys 1180, girls 1084) indicated that variables related to their life satisfaction were self-esteem, parenting style, peer attachment, grade satisfaction, and school adjustment. Both boys and girls were clustered into three clusters. The cluster 1 children indicated the highest degrees of self-esteem, peer attachment, grade satisfaction and school adjustment levels, and they perceived parenting style more positively than the children from the other clusters. The cluster 3 children showed the opposite trends to the cluster 1 children in each of the five variables and the cluster 2 showed middle levels in all of the variabl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three clusters were analyzed in terms of the differences of children's life satisfaction and explanatory variables of life satisfaction.

* 본 논문은 2013년도 한국아동학회 추계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1)] 고신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2)] 계명문화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3)] 동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Youngjoo Song,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eimyung College University, Daegu 704-703, Korea
E-mail : dodukyoung@kmcu.ac.kr

© Copyright 2014, The Korean Society of Child Studies. All Rights Reserved.

Keywords : 아동의 삶의 만족도(children's life satisfaction), 패널데이터(panel data),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Ⅰ. 서 론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최근에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어느 정도의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자 웰빙(well-being)의 열풍이 일어나 현대인은 한 차원 더 높은 삶의 풍요를 추구하게 되었다. 학계에서도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더 나은 삶의 질에 두어야 한다는 긍정심리학(Arthaud-Day, Rode, Mooney, & Near, 2005)의 영향으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삶의 만족도란 주관적인 안녕감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지표로서 개인이 자신의 전반적인 삶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인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Huebner, 2004; Pavot, Diener, Colvin, & Sandvik, 1991) 만족의 정도는 삶에 대해 개인이 설정한 만족의 기준과 현재 자신이 지각하는 삶의 상황 사이의 비교에 기초하므로 주관적 평가의 의미를 갖는다(Valois, Zullig, Huebner, & Drane, 2004). Day와 Jankey(1996)도 객관적 삶의 상황이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들의 경험에 대한 주관적 해석, 평가가 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모델이 성인을 대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초기연구는 노인을 포함한 성인대상 연구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최근 10여 년 동안에 삶의 만족도는 아동과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 가장 주목 받는 연구주제가 되었다(Lyons, Huebner, Hills, & Horn, 2013; Proctor, Linley, & Maltby, 2009).

아동 및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그들의 정신건강, 사회적 관계, 학교생활 등과 관련되며(Proctor et al., 2009) 긍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생활사건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보호요인의 역할을 하므로(Huebner, 1991; McKnight, Huebner, & Suldo, 2002)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에게 있어서도 유용한 심리적 요인이다. 특히, 최근의 연구는 어린 시기의 삶의 만족도나 행복감이 이후 시기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여(Bender, 1997; Lyons et al., 2013; Martin, Huebner, & Valois, 2008; Saha, Huebner, Suldo, & Valois, 2010) 아동 및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는 작업이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의 삶에 대한 주관적 행복감, 삶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발표한 '2013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Yeom, Kim, Lee, Park, & Lee, 2013)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행복지수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며 이러한 결과가 5년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우리나라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살, 중도탈락, 비행 등의 문제행동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행동이 발생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져 학령기 아동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Lee & Kwak, 2011)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령기 아동의

삶에 대한 만족과 행복에 대해서도 더욱 심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과거보다 아동의 성장발달이 빨라져서 초등학교 4학년 정도에 사춘기로 접어들어 학령기 후기 아동은 이차 성징과 이에 따른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변화를 겪게 된다(Shin, Jeon, & Yoo, 2010).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는 아동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심하게 겪지만 이 발달위기를 잘 해결하면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에 이르기까지의 행복한 삶을 이끌 수 있다.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되는 학령기 후기는 청소년기와 성인의 건강한 삶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 아동의 주관적 행복 또는 삶의 만족도는 미래 우리 사회의 건강을 예측하는 지표가 될 것이다.

삶의 만족도는 정적으로 결정된 상태가 아니라 개인내적 요인과 환경요인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적 특성을 가지므로(Fujita & Diener, 2005) 삶의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련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An, Lee, & Lim, 2013; Gilligan & Huebner, 2002; Kim & Lim,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요인, 가족요인, 또래요인, 학교요인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특히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내적 특성 즉, 개인적인 자원에 의해서 더욱 많이 예측되는데(Diener & Seligman, 2002; Fujita & Diener, 2005)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 중 가장 많이 보고되고 있는 변인은 아동의 자존감이다. 자존감은 자아에 대한 평가적인 측면으로서 개인의 자신에 대한 생각 또는 판단과 관련된 개념이다(Rosenberg, 1986). 즉,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태도, 자신의 가치에 대한 판단으로서 자기 자신을 유능하고 성공적이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라고 믿는 정도이다. 자존감은 주변 환경과 그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행동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있어서 자존감의 형성은 중요한 발달과업이다. 자존감이 높을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n et al., 2013; Chae, 2013; J. Kim, 2012; Lucas, Deiner, & Suh, 1996; Shin et al., 2010).

다음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가족요인은 부모요인으로서 부모양육태도, 부모애착 또는 지지, 의사소통을 포함한 자녀와의 상호작용 등이 자녀의 삶의 만족도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원 중 부모의 지원을 많이 받을 때 학령기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Park, Kim, Kim, & Min, 1999)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도 부모의 지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Park, 1999; Min, Park, & Kim, 2002). 학령기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Lee, 2009)에서 부모애착 및 지지가 4, 5, 6학년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일관되게 영향을 미쳤으며 부모의 개방적인 의사소통(Cho, Kim, & Kim, 2011) 또한 초등학교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의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부정적인 의사소통은 청소년 남, 녀 모두의 심리적 안녕감을 낮게 하는 반면, 부모가 가족의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요구하는 양육방식은 남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Jo & Kim, 2011). 그리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과잉 기대와 간섭은 청소년 자녀의 낮은 삶의 만족도 수준과 관계가 있었다(Kim & Lim, 2013). 따라서 자녀의 삶의 만족

도는 부모가 온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등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할 때 높은 반면, 부모-자녀 관계가 적대적이며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하며 거부적일수록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사회적 관계는 또래와의 관계이다. 아동기에 들어서 또래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래의 영향력과 친밀감이 증가하여 또래관계의 질은 아동 및 청소년의 긍정적 성장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리고 아동 중기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 까지 애착이나 친밀감의 대상으로 부모보다는 또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Nickerson & Nagle, 2004). 또래는 아동에게 새로운 상황에서 편안함을 제공하는 안전지대가 되며 이러한 안전지대의 부재는 불안의 원천이 되고 자신의 가치 지각에 손상을 가져오기도 한다. 또래애착은 부모애착과 같이 아동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잘 예견한다는 보고(Nickerson & Nagle, 2004)가 있는 반면, 또래애착은 부모애착과 달리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상관이 없다는 보고(Lee, 2010; Yoo, Lee, & Kim, 2005)도 있어 또래애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최근의 종단적 연구에 의하면 아동과 청소년의 또래관계는 당시의 삶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의 만족도를 예언하므로(Ferguson, Munoz, Garza, & Monica, 2014; Marion, Laursen, Zettergren, & Bergman, 2013)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또래요인에 대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삶의 영역이 가정에서부터 학교로 확장되는 학령기의 아동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생활하게 된다. 그러므로 학령기 아동이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만족하는 정도는 그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관련되는 학교요인으로서 성적 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 변인을 다루고자 한다. 학교는 배움의 장소이며 학업성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업성취 곧 학업성적은 학교생활만족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입시에 대한 중압감으로 학업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학업성적이나 학교에서 인정을 받는 것은 그들의 삶에 대한 안녕감이나 만족감을 결정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Cha & Kim, 2002). 일반적으로 성적이 높을수록 삶의 질과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 Kim, Oh, & Choi, 2006; Moon, Ryu, Kim, Lee, & Hong, 2000). 삶의 만족도에 대한 학업성적의 영향이 학령기 아동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남학생에게서는 학업성적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여학생에게서는 의미있는 영향 변인으로 보고되었다(Lee & Kwak, 2011).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 자체가 주관적 평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학업성적 변인을 성적 자체보다는 자신의 성적에 만족하는 정도로 측정하여 다루고자 한다.

학령기 아동의 삶의 만족도과 관련된 학교요인의 또 다른 변인은 학교생활적응으로서 학교생활적응은 학령기 아동의 발달과업 중 하나이다. 학령기 때의 학교생활적응이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전반적인 적응력을 높이는 주요 변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Song, Kim, & Hwang, 2011). 학교생활적응은 학생이 학교의 환경과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면서 개인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Choi, 2013)하며 학교생활적응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교사와의 관계, 교우

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등이 포함된다(Hong & Kim, 2005). 아동의 생활영역에서 학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정도가 아동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으므로(An et al., 2013; Kim & Lim, 2013; Lee, 2013)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이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학령기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는 점에서 아동의 삶의 만족도의 관련 변인 연구는 개인요인, 가족요인, 또래요인, 학교요인을 동시에 포함하여 고려해야 한다. 기존의 연구들도 삶의 만족도에 관련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e.g. Lee & Park, 2011; Moon et al., 2000). 그러나 다양한 변인들과 삶의 질 또는 만족도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뿐 관련 변인들의 조합을 통해 어떠한 동질적인 하위집단이 존재하는지를 탐색할 수 있도록 유형화(Borgen & Barnett, 1987)하여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 연구는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Lee와 Park(2011)이 전국에서 표집한 초등학교 4~6학년 아동 972명을 대상으로 아동 삶의 질을 연구하였으나 표집의 대표성이 높은 패널조사 데이터로 우리나라 학령기 후기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 변인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보다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성별에 따라 아동의 심리적인 특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로 학령기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다룬 선행연구들에서 성차를 보고하는 연구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전반적인 삶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가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높은 것으로 자주 보고(Choi, 2012; Goldbeck, Schmitz, Besier, Herschbach, & Henrich, 2007; Kwak, 2007; Lee, 2010; Moksnes, Lohre, & Espnes, 2013; Park, 2005; Shin et al., 2010) 되고 있는 반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Cho et al., 2011; Lee & Kwak, 2011). 그리고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도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Cho et al., 2011; Choi, 2012; Jo & Kim, 2011; Shin et al., 2010).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한 Lee와 Kwak(2011)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남학생, 여학생 모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나 학업성적은 여학생의 삶의 만족도에서만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삶의 만족도 관련 분석에서 성을 구분하여 다룰 것인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복잡한 다차원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Fujita & Diener, 2005)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되는 개인요인, 가족요인, 또래요인, 학교요인을 동시에 다루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개인요인으로 아동의 자존감, 가족요인으로 부모의 양육방식, 또래요인으로는 또래애착, 학교요인으로는 성적 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 등을 연구변인으로 포함하였다. 그리고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NYPI)(2012)의 'KCYPS(Korean Child and Youth Panel Survey) 2010 초4 패널 2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령기 후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의 성별로 삶의 만족도의 수준과 관련 변인을 탐색하고 관련 변인 간의 관계에 기초하여 관련 변인들이 어떻게 유형화되는지를 살펴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통해 학령기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다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의 성별로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변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의 성별로 삶의 만족도 관련 변인은 어떻게 유형화 되는가?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NYPI(2012)의 'KCYPS 2010 초4 패널 2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09년 4월 기준 한국아동청소년 초4패널, 즉 2차년도에 초등학교 5학년인 아동 2378명 중에서 성별이 결측인 경우를 제외한 2264명으로, 남아 1180명, 여아 1084명이었다.

Table 1을 보면, 남아의 94.7%, 여아의 94.0%가 건강한 편이고 대다수의 남녀 아동은 전학 경험이 없지만 방과후 학교(사교육 포함)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의 소득은 남아와 여아 모두 4천만원~5천만원대, 2천만원~3천만원대인 경우가 다수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은 아버지의 경우 대졸과 고졸, 어머니의 경우 고졸과 대졸의 순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연구도구

1) 삶의 만족도

S. Kim 등(2006)의 연구에서 사용된 3개 문항을 사용하였다(예: "나는 사는 게 즐겁다."). 4점 척도 형식의 각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로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Health				School-transfer		After-school	
	Very healthy	A little healthy	A little unhealthy	Very unhealthy	Experienced	Unexperienced	Experienced	Unexperienced
Boy	468	648	52	11	41	1139	1025	131
n(%)	(39.7)	(55.0)	(4.4)	(.9)	(3.5)	(96.5)	(88.7)	(11.3)
Girl	413	605	59	6	56	1028	987	76
n(%)	(38.1)	(55.9)	(5.4)	(.6)	(5.2)	(94.8)	(92.9)	(7.1)

	Annual income(Million won)					Parent's educational level					
	Under 20	20~39	40~59	Over 60		Under high school	High school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NA
Boy	100	389	389	278	Father	44	800	217	916	109	11
n(%)	(8.7)	(33.7)	(33.7)	(24.0)	n(%)	(2.1)	(38.1)	(10.3)	(43.7)	(5.2)	(.5)
Girl	89	352	345	277	Mother	40	1020	279	728	51	9
n(%)	(8.4)	(33.1)	(32.5)	(26.1)	n(%)	(1.9)	(48.0)	(13.1)	(34.2)	(2.4)	(.4)

써 삶의 만족도가 조작적 정의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문항신뢰도인 Cronbach의 α 값은 .81로 나타났다.

2) 자존감

Rosenberg(1965)의 자존감척도를 번안한 10개 문항(cited from Behavioral Science Research Center of Korea University, 2000)으로 측정되었다(예: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4점 척도의 문항반응 양식에 따라 반응한 점수의 문항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문항신뢰도인 Cronbach의 α 값은 .78이었다.

3) 부모의 양육방식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방식 측정을 위해 2차년도 패널조사에서는 Hur(2000), Kim(2003)이 구성한 아동학대 문항 중 일부를 참고로 하여 연구진이 작성한 방임과 처벌에 관한 4점 척도 형식의 각 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예: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 몸이나, 옷, 이불 등이 깨끗하도록 항상 신경 쓰신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 총 8개 문항에 대한 문항신뢰도인 Cronbach의 α 값은 .60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8개 문항의 평균점수로써 양육방식 점수를 산출하였으므로 양육방식 점수가 높을수록 방임과 처벌이라는 부정적인 양육 수준이 높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4) 또래애착

또래애착은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애착척도(IPPA) 총 25문항 중 의사소통, 신뢰, 소외의 하위영역 당 3개 문항씩 총 9문항으로 구성(cited from Hwang, 2010) 되었다(예: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Cronbach의 α 값은 .7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또래애착 점수로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애착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성적만족도

본 변인은 성적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하는 "학생은 자신의 성적에 대해 얼마나 만족합니까?"라는 단일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패널조사 연구진이 작성한 이 문항에 대해 아동은 매우 만족한다, 만족하는 편이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의 4점 척도에 반응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을 의미하였다.

6)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은 Min(1991 cited from Jeong, 2009)이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초등학생용으로 제작한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문항을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이 도구의 하위영역은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이며 하위영역당 4점 척도의 5개 문항,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영역별로 문항 예를 들면,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당번이나 1인 1역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내 짝이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 함께 보거나 빌려 준다.",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와 같다. 문항신뢰도 Cronbach의 α 값은 .8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 점수로 문항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도가 낮다고 볼 수 있었다.

3. 자료분석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의 성별로 아동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변인을 알기 위해 먼저 삶의 만족도 및 관련 변인 점수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그 변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의 삶의 만족도 관련 변인들의 구성 유형을 알기 위해서는 관련 변인 측정치를 표준점수화 한 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의 수(K)는 군집별 변량분석의 제곱합이 최소화되고 군집간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K값으로 선택(Susman, Schmelk, Ponirakis, & Gariepy, 2001)함으로써 3개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군집간 차이를 관련 변인별로 확인하고자 변량분석하고 사후검증으로는 Scheffé 검증을 하였다. 아울러 군집유형화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무선 반분 표본으로써 군집분석 결과의 교차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각 군집유형의 특성을 알기 위해 첫째, 군집 유형간 삶의 만족도 차이를 변량분석하고 사후검증으로는 Scheffé 검증을 채택하였다. 둘째, 군집내 관련 변인들의 구성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군집별로 관련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 하였다.

Ⅲ. 결과분석

1. 삶의 만족도 관련 변인

아동의 성별로 삶의 만족도 관련 변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삶의 만족도와 다른 연구변인 간

〈Table 2〉 Pearson's correlational coefficients of life satisfaction and related variables in boys and girls

	Self-esteem	Parenting style	Peer attachment	Grade satisfaction	School adjustment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Parenting style	.48**a .44**b					
Peer attachment	.54** .57**	.38** .39**				
Grade satisfaction	.35** .41**	.22** .20**	.21** .24**			
School adjustment	.46** .54**	.41** .44**	.44** .50**	.27** .29**		
Life satisfaction	.57** .59**	.43** .42**	.46** .47**	.25** .33**	.45** .48**	

**p < .01.
a: Boys, b: Girls.

〈Table 3〉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for life satisfaction in boys and girls

Gender	Model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R^2	*F*
Boys	1	Self-esteem	.79	.03	.57***	.33	571.45***
	2	School adjustment	.32	.04	.23***	.37	343.43***
	3	Parenting style	.25	.04	.16***	.39	247.66***
	4	Peer attachment	.18	.04	.14***	.40	196.36***
Girls	1	Self-esteem	.81	.03	.59***	.34	564.85***
	2	School adjustment	.38	.05	.239***	.38	336.32***
	3	Parenting style	.26	.05	.15***	.40	240.71***
	4	Peer attachment	.16	.04	.13***	.41	188.27***
	5	Grade satisfaction	.08	.02	.10***	.42	155.28***

***p < .001.

의 상호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남아와 여아 모두 자존감, 양육방식, 또래애착, 성적만족도, 학교생활적응 변인 각각이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삶의 만족도의 관련 변인 간의 상관계수는 남아의 경우 .22～.54, 여아의 경우 .20～.57로 나타나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관분석에서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관계를 보인 변인들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하기 위해 성별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에 각각 제시하였다.

Table 3에서 알 수 있듯이 남아의 경우, 투입된 독립변인 중 자존감(33%), 학교생활적응(4%), 양육방식(2%), 또래애착(1%)의 순으로 삶의 만족도 설명변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도 유의한 예측 변인과 그 영향력의 순서가 남아와 동일하게 나타났고(자존감 34%, 학교생활적응 4%, 양육방식 2%, 또래애착 1%) 성적만족도 변인이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변인으로서 설명변량을 1% 추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삶의 만족도 관련 변인의 유형화

아동의 성별로 삶의 만족도의 관련 변인 구성 유형을 조사하기 위해 군집의 수를 3개로 지정하여 군집분석한 결과는 Table 4, Table 5에 각각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성별에 따라 군집분석한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ure 1, Figure 2와 같다.

Table 4에서 보듯이 남아의 경우 삶의 만족도 관련 5가지 변인 모두 평균점수가 -.97～-.65의 분포를 보이는 군집1(356명, 30.27%), 관련 변인들의 평균점수가 Z점수의 평균에 근접하는 -.11～.40의 분포를 보이는 군집2(528명, 44.90%), 군집1과 상반되게 5가지 관련 변인 모두 평균점수가 .72～1.17의 분포를 보이는 군집3(292명, 24.83%)으로 유형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변인별로 군집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자존감(F = 674.25), 양육방식(F = 482.25), 또래애착(F = 479.33), 성적만족도(F = 189.64), 학교생활적응(F = 403.72) 변인들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 < .001). 그리고 사후검증에 의해 관련 변인들 모두에서 군집3, 군집2,

〈Table 4〉 Results from cluster analysis and ANOVA in boys

Predicting variable	Cluster1 (n = 356)	Cluster2 (n = 528)	Cluster3 (n = 292)	Total (N = 1176)[a]	F	Scheffé's test
	M (*SD*)	*M* (*SD*)	*M* (*SD*)	*M* (*SD*)		
Self-esteem	-.97 (.67)	.16 (.65)	.98 (.76)	.03 (1.00)	674.25***	Cluster1<2<3
Parenting style	-.70 (.60)	.04 (.79)	1.17 (.88)	.10 (1.03)	482.25***	Cluster1<2<3
Peer attachment	-.84 (.68)	.40 (.74)	.80 (.74)	.12 (.97)	479.33***	Cluster1<2<3
Grade satisfaction	-.65 (.80)	-.11 (.89)	.72 (.99)	-.07 (1.02)	189.64***	Cluster1<2<3
School adjustment	-.70 (.78)	.21 (.73)	1.12 (.97)	.16 (1.05)	403.72***	Cluster1<2<3

***p < .001.
a: Missing values were exclud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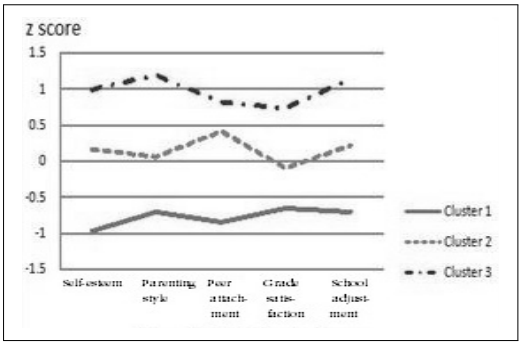
군집1의 순으로 점수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군집1은 다른 두 군집보다 자존감, 성적만족도, 또래애착, 학교생활적응이 높고 양육방식이 긍정적이라는 특성을 보이며 반대로, 군집3은 자존감, 또래애착, 성적만족도, 학교생활적응이 낮고 양육방식이 부정적인 특성을 보이며 다른 두 군집에 비해 그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수의 남아가 군집2에 속하며 이들은 5가지의 변인별 수준이 군집1과 군집3의 중간수준이라고 볼 수 있었다.

Table 5에 의하면 여아는 삶의 만족도 관련 변인 모두의 평균점수가 Z점수의 평균보다 낮은 -1.05～-.45의 분포를 보이는 군집1(371명, 34.26%), 관련 변인들의 평균점수가 -.10～.23의 분포를 보이는 군집2(505명, 46.63%), 군집1과 상반되게 관련 변인 모두 평균점수가 .73～1.06의 분포를 보이는 군집3으로 유형화됨을 알 수 있었다. 예측변인별로 군집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자존감(F = 746.20), 양육방식(F = 375.94), 또래애착(F = 587.03), 성적만족도(F = 131.81), 학교생활적응(F = 497.57) 변인들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 < .001). 그리고 사후검증에 의해 관련 변인들 모두에서 군집3, 군집2, 군집1의 순으로 점수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군집1은 다른 두 군집보다 자존감, 또래애착, 성적만족도, 학교생활적응이 높고 양육방식이 긍정적이라는 특성을 보이지만 반대로 군집3은 자존감, 성적만족도, 또래애착, 학교생활적응도가 낮고 양육방식이 부정적인 특성을 보이며 다른 두 군집에 비해 해당 아동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군집2는 5가지의 변인별 수준이 군집1과 군집2의 중간 수준이며 해당 아동의 수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아의 삶의 만족도 관련 변인들의 유형화 특성은 남아의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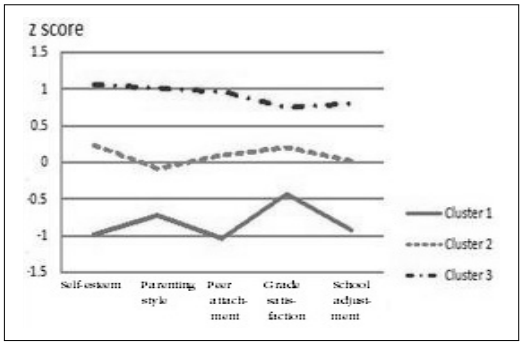
〈Table 5〉 Results from cluster analysis and ANOVA in girls

Predicting variable	Cluster1 (n = 371)	Cluster2 (n = 505)	Cluster3 (n = 207)	Total (N = 1083)[a]	F	Scheffé's test
	M (SD)	M (SD)	M (SD)	M (SD)		
Self-esteem	-1.00 (.65)	.23 (.61)	1.06 (.74)	-.03 (1.00)	746.20***	Cluster1<2<3
Parenting style	-.73 (.57)	-.10 (.76)	1.01 (.90)	-.10 (.95)	375.94***	Cluster1<2<3
Peer attachment	-1.05 (.65)	.09 (.70)	.95 (.78)	-.14 (1.01)	587.03***	Cluster1<2<3
Grade satisfaction	-.45 (.82)	.19 (.85)	.73 (.99)	.07 (.97)	131.81***	Cluster1<2<3
School adjustment	-.95 (.65)	.00 (.63)	.79 (.73)	-.17 (.91)	497.57***	Cluster1<2<3

***p < .001.
a: Missing values were excluded.



〈Figure 1〉 Boy's clustering



〈Figure 2〉 Girl's clustering

형화 특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었다.

한편 아동의 성별 군집분석 결과의 타당성 분석을 위해 무선적으로 반분 표본을 선정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3집단으로 군집분석함으로써 교차타당화를 검토한 결과는 Table 6과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다. Table 6과 Table 7에서 알 수 있듯이 무선적 반분 표본에 의한 교차타당화의 결과, 남아와 여아 모두 군집 내 변인들의 평균점수의 분포 형태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남아와 여아의 군집별 해당 아동의 분포 비율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분석대상을 무선적으로 반분함에 따른 분석사례 수 차이를 고려할 때 남아와 여아의 각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군집분석의 결과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었다.

〈Table 6〉 Results from cluster analysis by randomized split-half sample and ANOVA in boys

Predicting variable	Cluster1 (n = 208)	Cluster2 (n = 279)	Cluster3 (n = 211)	Total (N = 598)	F	Scheffé's test
	M (*SD*)	*M* (*SD*)	*M* (*SD*)	*M* (*SD*)		
Self-esteem	-.96 (.65)	.25 (.63)	1.10 (.86)	-.02 (1.02)	365.09***	Cluster1<2<3
Parenting style	-.72 (.57)	.23 (.78)	1.28 (.92)	.09 (1.03)	273.38***	Cluster1<2<3
Grade satisfaction	-.76 (.80)	-.02 (.86)	.90 (.95)	-.11 (1.04)	138.77***	Cluster1<2<3
Peer attachment	-.77 (.73)	.42 (.79)	.81 (.72)	.08 (.98)	211.98***	Cluster1<2<3
School adjustment	-.64 (.79)	.27 (.64)	1.12 (.97)	.11 (.99)	200.27***	Cluster1<2<3

***p < .001.

〈Table 7〉 Results from cluster analysis by randomized split-half sample and ANOVA in girls

Predicting variable	Cluster1 (n = 173)	Cluster2 (n = 275)	Cluster3 (n = 105)	Total (N = 553)	F	Scheffé's test
	M (*SD*)	*M* (*SD*)	*M* (*SD*)	*M* (*SD*)		
Self-esteem	-1.07 (.61)	.24 (.62)	1.04 (.70)	-.02 (1.00)	405.59***	Cluster1<2<3
Parenting style	-.71 (.55)	-.14 (.74)	.94 (.80)	-.11 (.90)	184.64***	Cluster1<2<3
Grade satisfaction	-.50 (.74)	.16 (.85)	.84 (.95)	.08 (.96)	86.77***	Cluster1<2<3
Peer attachment	-1.07 (.67)	.17 (.72)	.86 (.80)	-.09 (1.02)	268.43***	Cluster1<2<3
School adjustment	-.95 (.62)	-.03 (.61)	.88 (.74)	-.15 (.91)	278.46***	Cluster1<2<3

***p < .001.

〈Table 8〉 Results from ANOVA of life satisfaction scores by clusters

Gender	Cluster1	Cluster2	Cluster3	*F*
	M (*SD*)	*M* (*SD*)	*M* (*SD*)	
Boys	1.26[a] (.39)	1.74[b] (.54)	2.15[c] (.67)	225.58***
Girls	1.34[a] (.41)	1.91[b] (.54)	2.34[c] (.62)	273.95***

***p < .001.
a, b, c: Result from Scheffé's test.

〈Table 9〉 Result from regression analysis about effects of the variables on life satisfaction by gender and clusters

Gender	Cluster	Model	Added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R^2	ΔR^2	*F*
Boys	Cluster1 (n = 356)	1	Self-esteem	.15	.03	.25***	.06	.06	23.08***
		2	School adjustment	.08	.03	.17***	.09	.03	17.33***
		3	Parenting style	.10	.03	.15**	.11	.02	14.73***
	Cluster2 (n = 528)	1	Self-esteem	.21	.04	.25***	.06	.06	35.99***
		2	Parenting style	.08	.03	.12**	.08	.02	22.45***
		3	School adjustment	.10	.03	.14***	.10	.02	18.71***
		4	Peer attachment	.08	.03	.12**	.11	.01	16.13***
		5	Grade satisfaction	.06	.03	.10*	.12	.01	13.93***
	Cluster3 (n = 292)	1	Self-esteem	.41	.05	.47***	.22	.22	81.23***
		2	Peer attachment	.25	.05	.27***	.29	.07	58.35***
		3	School adjustment	.12	.04	.17***	.32	.03	44.23***
		4	Parenting style	.09	.04	.12*	.33	.01	35.22***
Girls	Cluster1 (n = 371)	1	Self-esteem	.15	.03	.24***	.06	.06	22.44***
		2	Grade satisfaction	.09	.03	.17***	.09	.03	17.10***
		3	School adjustment	.06	.03	.10*	.10	.01	12.93***
	Cluster2 (n = 505)	1	Self-esteem	.20	.04	.23***	.05	.05	27.21***
		2	School adjustment	.12	.04	.14**	.07	.02	18.80***
		3	Parenting style	.06	.03	.09*	.08	.01	13.99***
	Cluster3 (n = 207)	1	Self-esteem	.34	.05	.40***	.16	.16	39.60***
		2	Parenting style	.13	.04	.20**	.20	.04	25.41***
		3	School adjustment	.14	.05	.17**	.23	.03	19.81***
		4	Peer attachment	.14	.05	.18**	.26	.03	17.54***

*p < .05. **p < .01. ***p < .001.

군집 유형의 특성을 알기 위해 첫째, 군집간 특성으로서 성별로 군집간 삶의 만족도 점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Table 8에서 보듯이 남아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있어 군집3(M = 2.15, SD = .67), 군집2(M = 1.74, SD = .54), 군집1(M = 1.26, SD = .39)의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F = 225.58, p < .001). 이에 군집1의 아동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군집2, 군집3의 순으로 해당 군집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었다. 여아의 경우에도 세 군집간 점수의 차이가 유의하여(F = 273.95, p < .001), 군집3(M = 2.34, SD = .62), 군집2(M = 1.91, SD = .54), 군집1(M = 1.34, SD = .41)의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이에 군집1, 군집2, 군집3의 순으로 해당 군집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었다.

둘째, 각 군집 내에서 관련 변인들이 어떠한 양상으로 구성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변인들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군집별로 단계적 회귀분석한 결과는 Table 9에서 보는 바와 같다.

Table 9에서 각 군집 내 관련 변인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아의 군집1의 경우 자존감(β = .25), 학교생활적응(β = .17), 양육방식(β = .15)의 순으로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총 11%의 변량이 설명되지만, 다른 두 군집과 달리 또래애착은 유의한 설명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2는 자존감(β = .25), 양육방식(β = .12), 학교생활적응(β = .14), 또래애착(β = .12), 성적만족도(β = .10)에 의해 삶의 만족도 변인의 총 12% 변량이 설명됨으로써 다른 군집들보다 다양한 변인들의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군집3은 자존감(β = .47), 또래애착(β = .27), 학교생활적응(β = .17), 양육방식(β = .12)에 의해 삶의 만족도 설명이 가능한 군집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존감은 총 설명변량 33% 중 22%를 설명할 수 있고 또래애착 역시 7%를 설명함으로써 다른 두 군집에서의 설명력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아의 군집1은 자존감(β = .24), 성적만족도(β = .17), 학교생활적응(β = .10) 변인에 의해 삶의 만족도가 총 10%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군집들과 달리 성적만족도가 유의한 영향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군집2는 자존감(β = .23), 학교생활적응(β = .14), 양육방식(β = .09)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고 총 8%를 설명할 수 있는 군집으로 나타났다. 군집3은 자존감(β = .40), 양육방식(β = .20), 학교생활적응(β = .17) 외에 또래애착(β = .18)이 다른 군집들과 달리 유의한 독립변인으로 추가되어 총 26%의 삶의 만족도 변량에 영향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군집은 자존감의 설명력이 높고 나머지 세 개 유의 변인들의 설명변량은 3%~4%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의 성별로 아동 삶의 만족도에 관련된 다양한 변인을 알아보고, 이러한 관련 변인들이 어떻게 유형화 되는지를 살펴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연구문제별 결과에 근거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전분석을 통해 삶의 만족도는 남아가 여아 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와 같이 남아와 여아의 만족도를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지지해 주는 결과였다. 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는 학령기의 남아는

여아보다 자신의 삶에 대해 더 만족한다는 선행연구들(Choi, 2012; Goldbeck et al., 2007; Kwak, 2007; Lee, 2010; Lee & Park, 2011; Moksnes et al., 2013)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학령기 초기부터 여아는 대인관계 지향적 특성으로 인해 남아보다 타자의 평가나 비교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삶의 만족도와 관계가 깊은 자아존중감(e.g. An et al., 2013)이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되는 것(Harter, 2006)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되었다.

남아와 여아 모두 자존감, 양육방식, 또래애착, 성적만족도, 학교생활적응이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은 자존감이 높고 부모의 양육방식이 처벌적·방임적이라고 지각하지 않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었다. 또한 또래애착 수준이 높고 자신의 학업성적에 만족할수록, 학습활동과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등을 포함한 학교생활적응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기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개인요인과 환경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변화하는 다차원적 특성을 갖는다(Fujita & Diener, 2005)는 것을 뒷받침 해 주었다.

그러나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관련 변인의 모형에서는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남아의 삶의 만족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은 자존감이었으며, 다음으로 학교적응, 양육방식, 또래애착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남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추가적 설명력이 없었다. 물론 이것은 남아의 학업성적 만족이 학교적응이나 또래애착 등의 다른 변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여아의 만족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은 남아와 동일한 자존감이었으나 학교적응, 양육방식, 또래애착, 성적만족의 순으로 만족도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와 달리 여아의 경우에 학업성적 만족이 삶의 만족도를 추가적으로 의미있게 설명한다는 결과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선행연구들(Cho et al., 2011; Choi, 2012; Jo & Kim, 2011; Shin et al., 2010)과 같은 맥락의 결과이며, 초등학교 남학생과 달리 여학생만 학업성적이 만족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결과(Lee & Kwak, 2011)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학령기 후기의 여아가 지각하는 삶의 만족도에서 자신의 학업성취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였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로 대상 아동의 삶의 만족도 관련 변인들을 유형화한 결과 세 개의 군집으로 유형화되었다. 유형화의 타당성 검토 결과 남아와 여아 각각의 세 군집은 자존감, 양육방식, 또래애착, 성적 만족도, 학교생활적응 등에서 모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나아가 각 군집유형의 특성을 알기 위해 먼저 군집간 삶의 만족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군집1의 아동은 다른 두 군집 아동보다 자존감, 성적만족도, 또래애착, 학교생활적응이 높고 부모의 양육방식을 덜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3의 아동은 이러한 다섯 가지 관련 변인에서 상반된 경향과 삶의 만족도 또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군집2의 아동은 5개 변인과 삶의 만족도 수준 모두에서 군집1과 군집3 아동의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특성을 보였다. 그러므로 삶의 만족도 관련 변인들 중 특정 변인만이 아니라 긍정적 특성 변인의 수준은 일관되게 높게, 부정적 특성 변인의 수준은 낮게 가진 아동이 삶의 만족도를 높게 지각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영역들

간의 상관이 높다는 Lee와 Park(2011)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관련 변인들의 긍정적인 특성은 높게, 부정적인 특성은 낮게 갖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었다.

군집 특성의 또 다른 측면으로서 각 군집 내에서 삶의 만족도 관련 변인들이 어떠한 양상으로 구성되는지를 살펴본 결과, 남아와 여아의 모든 군집에서 공통적으로 자존감이 가장 설명력이 높은 첫 번째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즉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 아동일수록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문제1에서 삶의 만족도 예측력이 높은 변인이 자존감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관된 것으로서, 자존감이 높은 아동은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다고 할 때(An et al., 2013; Chae, 2013; J. Kim, 2012; Shin et al., 2010) 수용 가능한 결과였다. 따라서 학령기 후기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어 아동이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 중 남아와 여아의 모든 군집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또 다른 변인은 학교생활적응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자존감와 함께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Yoo(2012)의 연구 결과나 또래나 교사가 아동에게 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할수록 아동의 행복감 또는 주관적 안녕감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Piko & Hamvai, 2010; Saha et al., 2010)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5학년 아동에게 학교는 하루 일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다양한 상호작용 경험을 제공하는 의미있는 장을 제공한다. 따라서 자신이 학교에서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주관적 해석은 이 시기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잘 예측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교폭력이나 왕따 등의 문제가 아동의 적응과 행복을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지목되는 현실에서 학령기 후기 아동의 학교생활 관리와 지도가 매우 중요함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학령기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이상의 공통 요인 외에 주목할 만한 것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은 군집에서 유의한 설명 변인이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었다. 즉 남아는 양육방식 변인이, 여아는 학업성적만족도가 유의한 추가 변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동일한 패널 데이터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선행 연구(H. Kim, 2012)에 의하면 5학년 남아는 여아보다 부모의 방임・처벌적인 양육방식을 더 높게 지각하였으며, 학령기 후기와 청소년 초기 남아는 여아에 비해 신체적 처벌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Moon et al., 2000). 이러한 연구를 볼 때 남아는 부모와의 부정적인 관계나 양육방식에 민감하고 이러한 남아의 특성의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여아의 경우 성적만족도 변인의 유의한 기여가 나타난 것은 남학생과 달리 여학생에게서 학업성적이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의미 있는 영향 변인으로 제시되었다는 Lee와 Kwak (2011)의 결과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가 높은 군집의 여아에서만 성적만족도 변인의 기여가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4~6학년을 대상으로 한 Lee와 Park(2011)의 연구에서 남아와 여아 모두 삶의 질에 학업성적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것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것은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를 군집화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설명하였기 때문에 좀 더 차별적인 변인의 설명력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학업성적은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의 삶에 대한 안녕감과 만족감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으로 성적이 높을수록 삶의 질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보고된다(e.g. Cha & Kim, 2002; Lee & Park, 2011; O. Kim et al., 2006). 더욱이 경쟁 중심의 한국 사회에서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학생일수록 더 행복하고, 학교 성적이 낮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간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세 군집 모두 학령기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성적만족도가 미치는 영향이 다른 요인보다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자존감이나 학교생활적응과 같은 변인이 삶의 만족도를 더 잘 설명하고 성적만족도의 추가적 설명력이 없는 군집의 경우가 많았다. 특히 삶의 만족도가 낮은 유형에서도 성적만족도가 남, 여아 모두에서 의미 있는 설명력을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은 본 연구의 대상 아동이 학령기 후기에 속하여 청소년기에 비해 학업에 대한 압력이나 사회적 요구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결과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실제 성적이 아닌 학업성취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해석을 칭하는 성적만족도를 포함하였으므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NYPI(2012)의 'KCYPS 2010 초4 패널 2차년도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변인 중에서 관련 변인을 선정하였으므로 의미있는 삶의 만족도 예측 변인들을 충분히 포함하여 다루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령기 후기의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성별로 구분하여 다차원적으로 확인하고 유형화함으로써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였다는 데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5학년 남녀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변인에서 차이가 있고, 그 변인들의 관계로써 유형화된 아동들이 보이는 특성의 차이는 학령기 후기 아동의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적 지원과 정책 및 관련 프로그램을 일률적으로 구성, 운영해서는 안 됨을 보여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구체적인 예로서,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의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서는 관련 변인들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각 변인 특성에서의 변화를 꾀하되 특히 자존감을 높이는데 중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학교생활에서 성적의 향상보다 생활 관리와 지도가 중요하며, 남아는 여아와 달리 부모와의 관계 중요성이 확인되었으므로 교육현장뿐 아니라 부모도 자녀 삶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부모역량의 강화와 같은 노력을 통해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었다.

이상의 논의와 함께 본 연구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변인은 자존감, 양육방식, 또래애착, 성적만족도, 학교생활적응 변인이다. 관련 변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은 남아와 여아 모두 자존감, 학교생활적응, 양육방식, 또래애착의 순으로 높고, 여아의 경우 추가적으로 성적만족도가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다.

둘째,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의 삶의 만족도 관련 변인들로 구성되는 3개의 군집은 남아와 여아 모두 공통된 특성을 보인다. 즉 자존감, 또래애착, 성적만족도, 학교생활적응 각각이 가장 높고 양육방식이 가장 덜 부정적인 군집, 자존감, 또래애착, 성적만족도, 학교생활적응 각각이 가장 낮고 양육방식이 가장 부정적인 군집, 그

리고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숫자의 아동이 속하며, 5개의 관련 변인별 수준이 중간 수준을 보이는 군집이다.

References

An, S., Lee, H., & Lim, J. (2013). The influence of conflict with parents, peer relationship, and school adaptation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ir satisfaction with lif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1*(2), 77-91.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Arthaud-Day, M. L., Rode, J. C., Mooney, C. H., & Near, J. P. (2005). The subjective well-being construct: A test of its convergent, discriminant, and factorial validity. *Social Indicators Research, 74*(3), 445-476.

Behavioral Science Research Center of Korea University (2000). *Handbook of psychological scale* I. Seoul: Hakjisa.

Bender, T. A. (1997). Assessment of subjective well-being during children and adolescence. In G. D. Phye (Ed.), *Handbook of classroom assessment: Learning, achievement, and adjustment* (pp. 199-255). New York: Academic Press.

Borgen, F. H., & Barnett, D. C. (1987). Applying cluster analysis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4), 456-468.

Cha, K., & Kim, M. (2002). Subjective well-being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mong high-school students. *Annual Conference of Korean Psychology Association*, 203-209.

Chae, J. (2013). The influence of fathers' parenting behavior, communication with fathers, and the self concept of middle school student on their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1*(1), 39-48.

Cho, S., Kim, M., & Kim, H. (2011). Differences between parents and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study pressure, achievement pressure,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style for children's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3*(1), 47-67.

Choi, I. (2012).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with parents, peers, and teacher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An examination of the mediating effect of self resilience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43*(3), 105-129.

Choi, M-K. (2013). The relationships between career maturity, anxiety and school related adjustment levels of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4*(4), 65-81.

Day, H., & Jankey, S. G. (1996). Lessons from the literature: Toward a holistic model of quality of life. In R. Renwick & M. Nagler (Eds.), *Quality of life in health promotion and rehabilitation: Conceptual approaches, issues and applications* (pp. 39-50). CA: Sage Publication.

Diener, E., & Seligman, M. E. (2002). Very happy people. *Psychological Science, 13*(10), 81-84.

Ferguson, C. J., Munoz, M. E., Garza, A., & Monica, G. (2014). Concurrent and prospective analysis of peer, television and social media influences on body dissatisfaction, eating disorder symptoms and life satisfaction in adolescent girl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3*(1), 1-14.

Fujita, F., & Diener, E. (2005). Life satisfaction set point: St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1), 158-164.

Gilligan, T. D., & Huebner, E. S. (2002). Multidimensional life satisfaction reports of adolescents: A multitrial-multimethod stud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2*(7), 1149-1155.

Goldbeck, L., Schmitz, T. G., Besier, T., Herschbach, P., & Henrich, G. (2007). Life satisfaction decreases during adolescent. *Quality of Life Research, 16*, 969-979.

Harter, S. (2006). The self. In N. Eisenberg, W. Damon & R. M. Lerner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pp. 505-570). Hoboken, NJ: John Wiley & Sons.

Hong, S. H., & Kim, H. S. (2005). The effect of teacher behavior and attachment stability on school-related adjustment perceived by the first, the second and the third graders of elementary school. *Ewha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6*, 33-53.

Huebner, E. S. (1991). Initial development of the student's life satisfaction scale.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12*, 231-240.

Huebner, E. S. (2004). Research on assessment of life satisfa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6*, 3-33.

Hur, M. Y. (2000). The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perceived by adolesc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Hwang, M. K.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peer attachment of multi-culture children and social anxie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Jeong, H. S. (2009). The influence of attachment to mother and school life adjustments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s optimism.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Yongin, Korea.

Jo, H., & Kim, Y. (2011). Effects of family functioning on adolescents' emotional autonom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6*(3), 143-165.

Kim, H. G. (2012). Relations among parenting style perceived by children, peer attachment, and school adjustment: Focused on gender difference. *The Second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 Panel Investigation Conference,* 97-109.

Kim, J. (2012). The effects of youth volunteering on community consciousness and life satisfaction mediated by self-esteem and ego-resilience.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4*(1), 41-62.

Kim, O., Oh, Y., & Choi, M. (2006). The school-life satisfaction with background factors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5(1), 195-207.

Kim, S. (2003).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abused children's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Kim, S., Lim, J., Kim, S., Park, S., Yu, S., Choi, J., & Lee, G. (2006). *Developmental index study of adolescents 1: The validation of assessment index of the result*. Seoul: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Kim, U., & Park, Y-S. (1999).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pattern of Korean adolescents: With specific focus on the influence of friends, family, and schoo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3*(1), 99-142.

Kim, Y., & Lim, Y. (2013). Structural analysis of parental over-involvement, ego-resilience, school adjustment,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5*(2), 343-366.

Kwak, S. R. (2007). A study on life satisfaction of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17*(1), 1-21.

Lee, B., & Park, H. J. (2011). Self-reported quality of life in Korean school-age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4*(3), 129-152.

Lee, H., & Kwak, Y. J. (2011).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in the early youth.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7), 59-83.

Lee, J. R. (2009). The investigation of protective factors and risk factors in elementary students' life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0*(1), 11-25.

Lee, M. (2013).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parental attachment, self-related factors, mental-psychological factors, school adjustment and life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sei University, Gunpo, Korea.

Lee, S. (2010). A study on longitudinal analysis of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and its related variab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Korea.

Lucas, R. E., Diener, E., & Suh, E. (1996). Discriminant validity of well-being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Psychology, 71*, 616-628.

Lyons, M. D., Huebner, E. S., Hills, K. J., & Horn, M. L. (2013). Mechanisms of change in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51*, 587-598.

Marion, D., Laursen, B., Zettergren, P., & Bergman, L. R. (2013). Predicting life satisfaction during middle adulthood from peer relationships during mid-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2*, 1299-1307.

Martin, K., Huebner, E. S., & Valois, R. F. (2008). Does life satisfaction predict adolescent victimization experiences? *Psychology in the Schools, 45*, 705-714.

McKnight, C. G., Huebner, E. S., & Suldo, S. (2002). Relationships among stressful life events, temperament, problem behavior, and global life satisfaction in adolescents. *Psychology in the Schools, 39*, 677-687.

Min, B-K., Park, Y-S., & Kim, U. (2002).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An analysis of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The Journal of Inha Educational Research, 8*, 161-202.

Min, B. S. (1991). The effect of school adjustment and self-esteem on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Moksnes, U. K., Lohre, A., & Espnes, G. A. (2013). The association between sense of coherence and life satisfaction in adolescents. *Quality of Life Research, 22*, 1331-1338.

Moon, S., Ryu, K., Kim, K., Lee, K., & Hong, B. (2000). The quality of child life: Past, present and futur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9*, 9-48.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2). The second year data of Korean Child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elementary 4 panel. Retrieved June. 10, 2013, from http://archive.nypi.re.krsub.asp?BID=B36&idx=1875&BoardType=view&page=2&Search_m=&Search_t=&Mcode=C030000.

Nickerson, B., & Nagle, R. (2004). Parent and peer relations in middl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5*, 223-249.

Park, N. (2005). Life satisfaction among Korean children and youth: A developmental perspective.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6*, 209-223.

Park, Y-S., Kim, U., Kim, T-H., & Min, B-K. (1999). Structural dynamics of life-satisfaction and its relationship to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Analysis of primary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Social Issues, 5*(1), 57-76.

Pavot, W., Diener, E., Colvin, C. R., & Sandvik, E. (1991). Further validation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Evidence for the cross-method convergence of well being measures. *Personality Assessment, 57,* 149-161.

Piko, B., & Hamvai, C. (2010). Parent, school and peer-related correlates of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2,* 1479-1482.

Proctor, C. L., Linley, P., & Maltby, J. (2009). Youth life satisfac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0*, 583-630.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senberg, M. (1986).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Saha, R., Huebner, E. S., Suldo, S. M., & Valois, R. F. (2010). A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and parenting. *Child Indicators Research, 3*, 149-165.

Shin, M., Jeon, S., & Yoo, M. (2010).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and wellbeing in youth.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9), 131-150.

Song, Y-K., Kim, Y-H., & Hwang, S-S. (2011). Effects from the interaction of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in the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0*(1), 1-19.

Susman, E., Schmelk, K. H., Ponirakis, A., & Gariepy, J. L. (2001). Maternal prenatal, postparttum, and concurrent stressors and

temperament in 3-years-olds: A person and variable analysi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3*, 629-652.

Valois, R. S., Zullig, K. J., Huebner, E. S., & Drane, J. W. (2004). Life satisfaction and suicide among high school adolesc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6,* 81-105.

Yeom, Y., Kim, K., Lee, M., Park, H., & Lee, J. (2013). 2013 collection of Korean child well-being index and its international comparison with other OECD countries. Retrieved September. 02, 2013, from http://www.korsofa.org/bbs/board.php?bo_table=data&wr_id=65.

Yoo, A., Lee, J., & Kim, J. (2005). The impact of body-image, attachment to parent and peers, and resilience on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3*(5), 123-132.

Yoo, K. H. (2012). Effects of school adjustment mediated by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on academic achievement. *The Second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 Panel Investigation Conference,* 494-506.

Received February 28, 2014
Revision received April 28, 2014
Accepted May 26, 2014